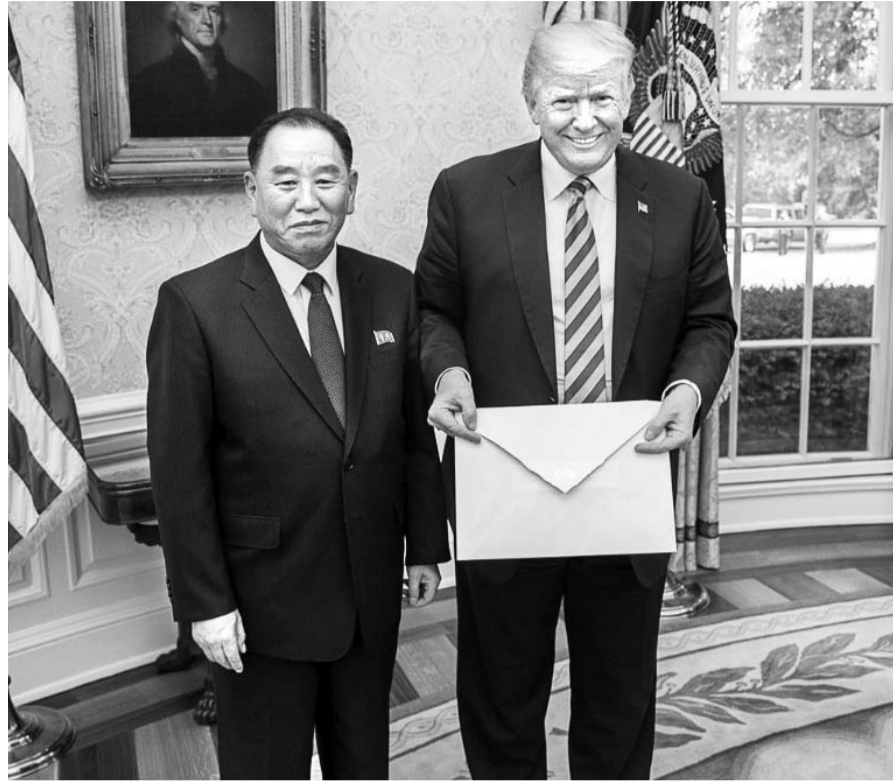


미 “비핵화”·북 “체제 보장”... ‘세기의 빅딜’ 초읽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의 대통령 집무실인 오벌 오피스에서 김정은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이 가져온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친서를 보여주고 있다. /연합뉴스

북미정상회담 D-8 핵탄두·ICBM 조기 반출·해체... 종전선언 등 북 안보우려 해소 관건

사상 첫 북미정상회담이 우여곡절 끝에 오는 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리게 되면서 ‘세기의 담판’에서 내놓을 ‘초대형 빅딜’에 관심이 쏠린다.

이번 정상회담은 기본적으로 북한의 비핵화에 초점을 맞췄지만, 북한이 요구하는 비핵화의 반대급부로서 안보우려 해소도 함께 다룰 수밖에 없어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1일(현지시간) “오는 12일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에서 한국전쟁 종전선언이 나올 수 있다”며 “회담에 앞서 종전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밝힘으로써 이런 기조를 확인했다.

북미정상회담은 결국 북한의 비핵화 약속과 북한에 대한 체제안전보장을 맞바꾸는 방식의 딜이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비핵화 관건은 초기행동조치... “더 빨리, 더 많이”=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최근 러시아 외무장관을 접견한 자리에서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확고히 한데다, 트럼프 대

통령도 김영철 부위원장을 접견한 뒤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에 전념하고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이를 전제로 보면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확실하고 미국이 이를 신뢰하는 상황에서 비핵화 약속의 핵심은 핵을 보유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행동조치를 얼마나 빨리, 많이 취하느냐에 달렸다.

미국은 현재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핵탄두를 조기에 해외로 반출해 현재 핵위협을 줄이는 데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서 핵탄두를 미국까지 날려보낼 수 있는 운반수단인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폐기도 핵심이다. 미국 입장에서 핵탄두보다 이를 실어보낼 수 있는 북한의 미사일 능력을 더 위협으로 느낄 수 있어서다.

◇북한의 안보우려 해소 상응조치, 종전선언까지=미국이 비핵화 조치에 관심을 가진다면 북한은 자신들의 안보우려를 동시에 해소해야 한다는 과제를 안고 있다.

북한의 핵탄두와 ICBM이 미국의 안보 우려 사안이라면, 북한은 세계의 경찰국가로서 각종 전략자산을 보유해 언제든지 제3국 침공이 가능한 미국의 적대시 정책을 우려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북한의 더 크고 빠른 초기비핵화 행동조치를 요구하는 만큼 북한은 더 확실하고 유의미한 안전보장 조치의 조기 약속을 원할 것이 자명하다.

이에 따라 종전선언 카드가 급부상하는 모양새다. 남북미가 종전선언을 만들어 발표하면 내용은 단순히 한국전쟁의 완료를 선언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한반도에서 더는 전쟁이 없을 것을 분명히 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북한이 미국의 침공 가능성에 우려하는 만큼 한반도에서 추가적인 전쟁이 없을 것을 분명히 하고, 남북미 3국이 서로를 공격하지 않을 것을 담아서 북한의 안보우려를 해소한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미국이 북한과 관계 정상화 과

정에 들어가는 것도 핵심적인 비핵화 상응 조치로 볼 수 있다. 초기에 연락사무소 등을 설치하고 북한의 초기비핵화 이행조치의 과정을 보면서 대사관 설치로까지 이어간다면 북한에게 확실한 안전담보조치가 될 수 있다는 얘기다.

◇단계를 어떻게 나눌까=북한의 비핵화는 한꺼번에 달성하기 어렵다는 것이 대체적인 지적이고 결국 속도는 내외 잘라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김정은 위원장이 라브로프 외무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단계적으로 풀어나가며 효율적이고 건설적인 대화와 협상으로 문제 해결이 진척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지난달 24일(현지시간) 폭스뉴스 방송 ‘폭스 앤 프렌즈’에 출연해 북한 비핵화 방식과 관련, “물리적으로 단계적(점진적)이 조금 필요할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울러 1일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을 접견하고 나서, 12일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이후 추가 회담을 예고했다.

/연합뉴스

문 대통령, 북미정상회담 때 싱가포르 합류할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12 북미 정상회담을 공식화하고 종전선언도 다룰 것이라고 언급함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의 싱가포르 방문이 현실화 될 것인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문 대통령의 싱가포르 방문은 북미정상회담이 이어 곧장 남북미 정상회담이 열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남북미 종전선언으로 한반도 평화정착이 가시화될 것으로 풀이되고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북미 정상회담에 앞서 종전 논의가 있을 것”이라며 싱가포르 회담에서 종전선언이 나올 수 있다고 공개함으로써 처음으로 종전선언에 대한 입장을 표명했다.

문 대통령도 지난 5·26 남북정상회담이 틀날인 지난달 27일 기자회견에서 “북미정상회담이 성공할 경우 남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종전선언이 추진됐으면 좋겠다는 기대를 갖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다만 청와대는 북미 협정의 초점이 비핵화에 맞춰져 있고 양자 간 줄다리기가 본

격화한 국면에서 문 대통령의 싱가포르 합류를 성급하게 거론하는 것 자체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 최대한 언급을 자제하며 북미 협상을 숨죽여 지켜보고 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싱가포르를 방문한다 해도 그곳에서 곧장 남북미 3자의 종전선언이 단행될 지 여부는 미지수다. 북미 정상회담이 성공리에 마무리되어 남북미 정상회담이 열리더라도 종전선언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추후 선언을 위한 협의를 거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실제 종전선언을 위한 실무 협의 등을 고려하면 남북미 정상 회담이 한 차례 더 필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종전선언 시기 도 선언의 역사성에 맞물려 한국전쟁 정전협정 체결일(7월27일)과 제73차 유엔 총회(9월 중하순) 같은 의미 있는 시일이 선택될 수 있다. 여기에 여전히 북미 양측의 비핵화 방법론 합의를 낙관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이에 따라 청와대 상황을 주시하며 ‘살얼음판 걷듯’ 조심스럽고 신중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 /임동욱 기자 tuim@

남북경협 사업도 시동

북한과 미국이 12일 싱가포르에서 정상 회담을 하고 비핵화와 체제안전보장을 교환하는 세기의 담판에 들어갈 예정인 가운데 남북경협협력 사업도 슬슬 시동을 걸 준비를 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원초는 이웃 국가인 한국, 중국, 일본이 하게 될 것”이라며 “이미 한국에도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일본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그의 발언은 대북지원에 대한 미국의 역할에 선을 긋기 위해 나온 측면이 강하지만 남한이 북한의 경제 발전에 있어 중국, 일본 등과 더불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실제 문재인 정부는 비핵화에 맞춰 대북경제해방을 추진하며 이에 맞물려 ‘한반도 신경재구상’으로 대변되는 대규모 남북경협사업에 착수할 준비를 갖추고 있다.

“한반도 신경재구상”은 서해안과 동해안, 비무장지대(DMZ) 지역을 H자 형태로 동시 개발하는 남북 통합 개발 전략이다.

동쪽에선 부산~금강산~원산~나선~러시아로 이어지는 에너지·자원 벨트를, 서쪽에선 목포~평양~신의주~중국을 연결하는 산업·물류 벨트를 각각 조성하는 한편 동서 방향으로 비무장지대 자연환경을 이용한 관광 벨트를 구축하는 것이다. /연합뉴스

‘판문점 선언’ 이행 속도낸다

14일 장성급 군사회담·8월 아세안 공동 참가 논의 등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4월 27일 첫 정상회담에서 ‘판문점 선언’을 도출한 지 한 달여 만에 합의 사항 이행이 급물살을 타게 됐다.

남북은 지난 1일 열린 고위급회담에서 장성급회담과 체육회담, 적십자 회담 등의 일정을 이달 내로 줄줄이 잡았다. 모두 북미정상회담이 예상되는 12일 이후다.

우선 남북은 약 2주 뒤인 14일 판문점 북측지역 통일각에서 장성급 군사회담을 열기로 했다. 남북 간 군사적 긴장완화 방안을 논의할 장성급회담은 판문점 선언에 ‘5월 중’ 개최가 적시된 합의사항이지만 결국 6월로 밀리게 됐다.

나흘 뒤인 18일에는 8월 아시안게임 공동 참가를 논의할 체육회담이 판문점 남측지역 평화의집에서 열린다. 체육회담에서는 남북통일농구경기 일정과 관련한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농구 마니아’로 알려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4월 27일 정상회담 당시 문재인 대통령에게 남북 체육교류를 농구부터 시작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다시 나흘 뒤인 22일엔 금강산에서 8·15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적십자회담

이 개최된다. 2015년 10월 이후 약 3년 만에 열리는 상봉 행사로, 금강산 이산가족 면회소 시설 점검 등을 위해 회담 장소로 금강산으로 정한 것으로 보인다.

6·15 남북공동행사로 열릴 예정이다. 아직 언제, 어디서, 어느 규모로 치를지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북미정상회담에 총력을 쏟고 있는 북한 입장을 고려해 비교적 소규모로 치르는 쪽으로 협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북측이 이날 고위급회담에서 6·15 공동행사를 남측지역에서 열자고 제의한 것도 이 같은 배경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개성공업지구에 설치하는 문제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공동연락사무소가 개설돼 양측 당국자가 상주하게 되면 남북 간 소통과 교류의 수위가 한층 높아지게 된다. 공동연락사무소 위치로는 개성공단 내 남북경제협력협회사무소와 종합지원센터 건물 등이 고려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밖에 동해선·경의선 철도와 도로 연결 및 현대화 문제를 위한 분과회의와 산림협력 분과회의도 마련돼 북미 협의를 시작한다. 판문점 선언 이행 과정을 점검

6월 주요 남북회담 일정	
12일	북미 정상회담
13일	6·13 지방선거
14일	장성급 군사회담 장소: 판문점 통일각 (군사 긴장 완화와 국방장관회담 개최 협의)
18일	체육회담 장소: 판문점 평화의집 (아시안게임 공동참가와 남북통일 농구 경기 논의)
22일	적십자 회담 장소: 금강산 (8·15 이산가족 상봉행사 논의)

하기 위해 남북이 고위급회담의 정례적 개최에 합의한 것도 주목할 대목이다.

남북은 추후 시기를 정할 차기 고위급 회담에서 각 분야의 실무회담 진행 상황을 총괄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실무급에서 잘 풀리지 않는 문제들을 해결해 판문점 선언의 이행 속도를 높여나갈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경의선·동해선 철도 연결 및 현대화를 비롯해 남북 간 경제협력 관련 사업은 북미 간 비핵화 담판이 성공적으로 이뤄진다면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임야·삽니다
문중산/지분물건 환영. 010-6834-7400

부실채권 못받은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 차용증·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 녹취등 각종채권상담

▶ 절대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등 파악
- 실거주지 파악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 전국 68개 점포로 전국가능

▶ 국가신용관리사가 직접관리 ◀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신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재산이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담가능)

새한신용정보(주)
010-6833-1600
직통전화 062)513-4306

혈당조절
식후 혈당 상승억제!!!

식후 혈당상승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음 고시혈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과 안전성을 인정받은 원료로 제조된 건강기능식품

식후 2꺽술씩~ 하루 2번으로 식후 혈당상승 억제 OK!!!

삼성제약헬스케어(주) 당디펜스(D.Defense)
식후 혈당상승 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으로 1일 4꺽술로 혈당조절이 충분합니다.

당 디펜스 이런분들께 권해드립니다

- ▶ 혈당조절에 도움이 필요한 분
- ▶ 식후 혈당 상승이 걱정되시는 분
- ▶ 평상시 당수치가 높아 혈당조절이 잘 안되시는 분
- ▶ 혈당을 조절하여 건강을 유지하고 싶으신 분
- ▶ 생활습관이 불규칙하신 분

심의회번호 : 21719239

NAVER 유한바이오 백세생활건강 검색

010-3598-7080

“공장부지 매매” (급 매)

전남 나주시 문평면 옥당리 1397-13, 91-3

- 문평농공단지 6차선도로변 공장
- 대지 14,916.9㎡, 건물 998㎡(H비 구조)
- 태양광발전소 99kW 설치(건물위)
- 공장, 창고, 사무실, 샤워장, 화장실 시설 구비

건물일부 보증금 2천만원/월 190만원 임대중

◆ 매매가 28억 ◆ (조정가)

인원산업(주)
010-3605-0214
062) 655-4840

급 식당 임대

- 서구 쌍촌동 965-12번지 1층
- 약20평 보증금 1천만 월 90만
- 시설 : 에어컨, TV, 주방시설 완비
냉장고 기타비품 풀 완비 (약 4천만원 상당)
- 급 : 1천2백만에 양도
- 부동산 환영

감정가 40%이하 급 모델

- 전남지방 방 15개
- 감정 5억6천 급 매매가
- 3억5천 담보제공가능

감정가 30%이하 급 모델

- 광주 북구 방 30개
- 감정 11억 급 매매가 7억8천
- 현 법인소유 이전비 없음

문의 010-7527-7400